

## 100원 택시·공영 버스 ‘錢錢공공’



민선 6기 전남도의 대표 공약인 100원 택시, 버스공영제 등의 본격 실시를 앞두고 일선 시·군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약속했지만, 재정력이 취약한 형편에서 연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26일 오후 도청 서재발실에서 22개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100원 택시 및 버스공영제’ 사업추진 설명회를 가졌다. 도는 이 자리에서 올 하반기 보성·화순 등 2곳에서 ‘100원 택시’를 우선 실시하고, 버스공영제는 곡성·보성·영암·완도 등 4곳에 대해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택시, 보성·화순 우선 실시...22개 시·군 도입 땐 93억 필요  
버스, 초기자금 만 수십억...극비 지원계획 없어 지자체 고민

받아본 뒤 도입 형태, 시행 시기, 재정 지원 폭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018년 6월까지 점진적으로 22개 시·군에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인 ‘100원 택시’를 도입할 경우 모두 92억8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우선 22개 시·군을 44개 권역으로 나눈 뒤 올 하반기 4개 권역을 시작으로, 2015년 10개, 2016년 22개, 2017년 30개, 2018년 전 권역에서 ‘100원 택시’를 도입할 방침이다. 1개 권역당 연간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전남도가 예산의 30%, 시·군이 70%를 부담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우선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보성·화순에 3000만원씩 투입해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나설 방침이지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예산을 더 쓸 수도, 예산 부족으로 중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남에서는 올해 농식품부로부터 1억 72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무안군과 순천시와 각각 행복택시, 마중버스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정부 예산 지원이 절반으로 깎일 예정이어서 지자체의 부담이 늘게 됐다.

‘100원 택시’보다 부담이 큰 것은 버스공영제다. 버스공영제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 운행중인 버스와 버스회사를 사들여야 돼 초기자금이 최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0월 타당성 조사와 경영수지분석시스템 개발 용역을 통해 완전공영제로 할지, 준공영제에 그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군이 오지노선 보조, 유류대 보조 등으로 연간 15억~20억 원 이상을 버스회사에 지급하고 있어 완전공영제가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완전공영제는 준공영제든 국·도비 지원계획도 없어 지자체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전남도 관계자는 “복지 향상을 위해 예산 부담은 불가피한 측면”이라며 “다만 지나치게 문제가 있다면 공약이라도 수정·보완할 수밖에 없으며, 대중교통 관련 공약도 마찬가지로”라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회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규탄 결의대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朴대통령이 응답하라” 野, 세월호법 장외투쟁

여야 극한대립 정치 마비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정국 파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치권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됐다.

특히 새누리당의 3자 협의회 거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사실상 국회 일정 거부와 함께 1년여 만에 장외로 나가면서 민생현안 표류가 현실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국회 일정 ‘울스톱’으로 당장 26일 실시 예정이었던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됐고, 2013회계연도 결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이 출출이 뒤로 밀리고 있다. 나아가 특단의 해법이 없는 한 정국 파행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7시간여에 걸친 의원총회 끝에 대야 강경투쟁을 선포하고 국회 예결위장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

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유가족과 국민 곁에서 싸우겠다”며 “국민의 목숨을 외면하는 국가가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어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규탄결의대회도 개최했다. 소속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날 국회 예결위장에서 이틀째 철야농성을 계속하고, 이날 말까지 상임위별로 조를 편성해 비상총회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회 내에 근거지를 뒀지만 사실상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3자 협의회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7·30 재보궐 선거 결과가 보여준 민심과 180여 명의 행하는 처사다. 장외투쟁은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을 것이다”며 강경투쟁에 나선 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도 세월호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비엔날레 작품 설치 2014광주비엔날레 개막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일 비엔날레 전시장에서 참여작가 코넬리아 파커의 작품 ‘어둠의 심장’을 그의 작업팀이 설치하고 있다. ‘터전을 불태우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는 오는 9월5일부터 11월9일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수능 1위’ 자사고·자공고가 이끌었다

광주 ‘수능 1위’ 도약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자율형공립고(자공고)가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자료’ 분석 결과, 광주지역 고교는 국

어·수학·영어 표준점수 합계 평균 상위 100개 고교에 4개교가 포함됐다.

광주지역 고교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곳은 자사고인 송덕고였다. 송덕고는 국어·수학·영어 표준점수 합계 평균 354.2점으로 전국 55위를 기록했다. 이어 특목고인 광주과학고가 351.4점으로 61위, 자사고인

표준점수 상위 100곳  
송덕고 등 4개 고교 포함

송원고가 347.6점으로 77위를 기록했다. 자공고인 상일여고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상일여고는 344.5점으로 전국 86위로 뛰어올라 공립고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광주지역 평준화 일반고는 100위권에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는 광주가 제주를 제치고 수능 표준점수 평균 전

국 1위로 올라선 것이 결국 자사고와 자공고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미다.

전남에서는 특목고인 전남고교가 349.1점(전국 69위)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어 비평준화 고교인 장성고 248.9점(70위), 자사고인 광양제철고 348.7점(71위), 비평준화 고교인 능주고 345.4점(82위), 장평고 341.8점(99위) 등 5개 고교가 100위권 내에 포함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영란 전 대법관 인터뷰

김영란법 10년 전 시행됐다면... ▶3면

김호, 김호고속 인수 빨간불

사모펀드 ‘매각 먹튀’ 우려 ▶8면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2014. 9. 6(토)~9.18(목)  
정시접수 2014.12.19(금)~24(수)  
입학문의 062)605-1114, 1027  
광신대학교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삼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경부광일 표준 연비 및 용량 • C 200 1,991cc, 1,505kg, 주행거리,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44g/km • C 200 Avantgarde 1,991cc, 1,505kg, 주행거리,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단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44g/km • C 220 BlueTEC Avantgarde 2,143cc, 1,625kg, 주행거리,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8단, 복합CO<sub>2</sub> 배출량 111g/km • C 220 BlueTEC Avantgarde with Passivacoustic-structure 2,143cc, 1,625kg, 주행거리,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8단, 복합CO<sub>2</sub> 배출량 111g/km • C 220 BlueTEC Exclusive 2,143cc, 1,625kg, 주행거리,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8단, 복합CO<sub>2</sub> 배출량 111g/km  
복합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나상,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